

전북도민 금융사기 피해예방 맞손

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홍보·교육 등 공동 노력

전북도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홍보를 함께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관련 콘텐츠와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이스 피싱에 쉽게 노출된 동네 농어촌 등 소외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12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김수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김소연 전북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북의 현안인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지지와 협력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북의 현안인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지지와 협력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격주 단위 경제 현안 보고 요청 수락

文대통령, 靑수석 참석 경제장관 회의체 관련 "투명히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4개 부

처 장관이 참석한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함께 한다.

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 대통령 정례보고는 오전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격주로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임 김동연 전 부총리는 월 1회 문 대통령을 독대해 정례보고 체제를 갖췄지만 홍 부총리는 접촉 횟수를 늘린 것이다. 경제 현안을 신속 공유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를

하자 "모임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에게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 팀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홍 부총리의 정례보고 자리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논의의 사항과 관련해 "2018년 경제상황과 2019년 경제전망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례보고에 배석했던 차영환 경제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당과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 성과보고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2일 전주시 리투체에서 '2018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자 및 관련 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그간 해의 수출분야 지원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도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도는 수출관련 개별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의 수출계약 상담 후 현지 판로, 마케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을 계획 중이다.

실제 내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센터 1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는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정보 교류 등 소통창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에로서향을 청취를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부안〉	공음면 참촌마을 120000
상서면 노적마을 222000	공음면 남동마을 130000
상서면 수련마을 100000	공음면 하군마을 185000
상서면 유정마을 296000	공음면 금정마을 110000
상서면 장동마을 220000	공음면 해정마을 170000
	공음면 상어마을 135000
	공음면 송운마을 120000
〈고창〉	
공음면 구정마을 95000	
공음면 두암마을 130000	

(12월 13일자)

신규 소방공무원 1월 임용 가능

도의회 행자위, 436명 임용 포함 민선7기 조직개편안 가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436명의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 등이 포함된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에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호 중 '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책관리·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도약정책·혁신기획·정책관리·인구정책'을 '대도약정책·대도약관리·인구정책혁신'으로 대신했다.

이날 가결은 지난달 19일 관련 조례안의 부결처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봉합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달 27일 수정된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12개 실·국·본부단, 57

개 관·과·단센터, 232개 팀에서 13개 실·국·본부단, 59개 관·과·단, 241개 팀으로 '1국 2과 8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융복합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에 주요 현안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대도약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축산환경개선팀과 스마트팜, 자동차산업팀도 새로 꾸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방직 436명을 포함한 481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내년 1월 문을 여는 완주소방서에 신규직원 67명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의회는 13일 개최하는 제35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의결 후 집행부는 내년 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민주 이춘석 의원, 홀로그래프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더불어민 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2일 익산 습리예술회관에서 전북과 익산 발전을 위한 홀로그래프산업 육성정책 주제 토론회를 했다.

홀로그래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차세대 신산업이다.

이미 티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홀로그래프 기술을 차세대 ICT 핵심기술로 선정해 앞다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세계 홀로그래프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743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시장 역시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 및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 ▲김성일 KT 전북 홀로그래프사업 총괄상무, ▲박성철 한교아이씨 대표 등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을 펼쳤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